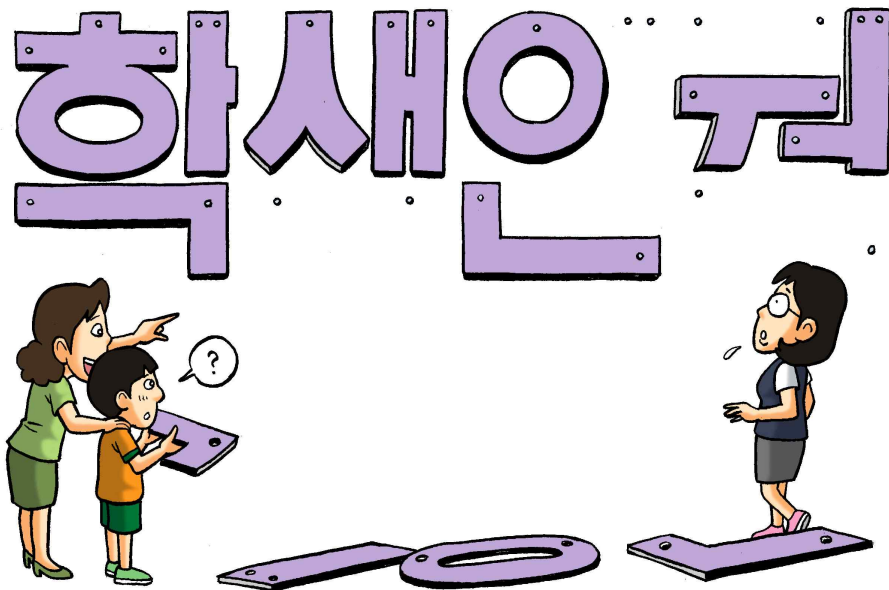


제7회 학생인권 토론회

‘학생이 생각하는 인권교육’

- ▶ 일시 : 2018. 4. 7.(토) 12:00 ~ 14:00
- ▶ 장소 :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
- ▶ 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토론회 순서

- ▶ 일시: 2018년 4월 7일(토) 12:00 ~ 14:00
▶ 장소 :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

시 간	내 용
11:50~12:00	• 접수 및 안내
12:00~12:10	•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 말씀 - 염규홍(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12:10~12:20	• 사회 - 설서윤(전주여자고등학교 학생, 참여위원회 대표) • 기조발제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교육 정책과 학생이 생각하는 인권 교육에 대하여” - 이창수(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12:20~12:40	• 토론자1 - 장유노(군산중학교 학생) • 토론자2 - 설지윤(전주아중중학교 학생) • 토론자3 - 김광영(군산중앙고등학교 학생) • 토론자4 - 박수정(양현고등학교 학생)
12:40~	• 분임 토의 및 자유토론
14:00~	• 정리 및 폐회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교육 정책

이창수(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I.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교육 근거와 실태¹⁾

1.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2018 전라북도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 2018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계획

2. 목적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통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순조로운 현장 안착 및 상호 존중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통해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 학교 현장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지원

1) 2018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계획(인성건강과-3145 2018. 2. 22.)

3. 방향

영역	내용
2017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동행 인권동아리(60팀) 운영 및 사례 공유 • 도내 고등학교(133개교) 대상 노동인권교육 지원 •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2회) 및 학생 인권아카데미 개최(4회) • 센터 방문 인권교육 및 학생회 임원 연수 실시 •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동영상 1편 및 웹툰 5화) • 교사 양성기관 대상 인권교육 실시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 강사단 활용이 저조함 • 인권감수성이 낮은 교사 대상 인권교육 지원 •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만들기 직무연수 활성화 • 인권교육 연구동아리 연구 활동 활성화 방안 •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이 인권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 적극적인 학생인권 홍보 방안이 필요
2018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강사단의 역량 강화(워크숍 및 센터 행사 참여) • 2018년도 인권교육 주제 : 차별 • 인권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학생인권 아카데미 및 직무 연수 운영 • 학생인권 토론회, 인권실태조사 등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 관련 의견 적극 수렴 • 연구동아리 운영의 질적 도모(교직원 및 인권활동가로 참여 인원 확대, 정책연구 반영, 운영 과정) • 적극적인 학생인권 홍보(학생인권의 날, 학생인권 홍보 동영상 제작)

4. 실태²⁾

학교 급	조사 학교수	학생인권교육		교직원 인권교육		학부모 인권교육	
		실시학교	강사초청 인권교육	실시학교	강사초청 인권교육	실시학교	강사초청 인권교육
초등학교	421	421(100%)	199(47%)	418(99%)	100(24%)	402(95%)	89(21%)
중학교	207	207(100%)	105(51%)	203(98%)	70(34%)	197(95%)	35(17%)
고등학교	129	129(100%)	126(98%)	125(97%)	46(36%)	103(80%)	9(7%)
특수학교	10	10(100%)	2(20%)	10(100%)	3(30%)	10(100%)	4(40%)
총계	767	767(100%)	432(56%)	756(99%)	219(29%)	712(93%)	137(18%)

학교 급	조사 학교수	학생인권교육 내용				교직원 인권교육 내용				학부모 인권교육 내용			
		학생 인권	장애 인권	성 인권	노동 인권	학생 인권	장애 인권	성 인권	노동 인권	학생 인권	장애 인권	성 인권	노동 인권
초등학교	421	411 (98%)	366 (87%)	210 (50%)	129 (31%)	403 (96%)	218 (52%)	165 (40%)	100 (24%)	417 (99%)	161 (38%)	132 (31%)	64 (15%)
중학교	207	201 (97%)	119 (57%)	81 (39%)	78 (38%)	195 (94%)	82 (40%)	80 (39%)	57 (28%)	180 (87%)	65 (31%)	57 (28%)	40 (19%)
고등학교	129	115 (89%)	72 (56%)	64 (50%)	122 (95%)	109 (84%)	51 (40%)	69 (54%)	51 (40%)	109 (84%)	28 (22%)	38 (29%)	30 (23%)
특수학교	10	10 (100%)	10 (100%)	4 (40%)	3 (30%)	10 (100%)	10 (100%)	5 (50%)	2 (20%)	9 (90%)	9 (90%)	2 (20%)	2 (20%)
총계	767	737 (96%)	567 (74%)	359 (47%)	332 (44%)	717 (93%)	361 (47%)	319 (42%)	210 (27%)	715 (93%)	263 (34%)	229 (30%)	136 (18%)

2) 2017 도내 초중고 인권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조사(인성건강과-30220 2017. 12.20.)

학교급	학 교 수	학생인권교육		교사인권교육		학부모인권교육	
		실시학교	인권교육 강사단	실시학교	인권교육 강사단	실시학교	인권교육 강사단
초등학교	421	421(100%)	79(21%)	418(98%)	55(11%)	402(95%)	31(6%)
중학교	207	207(100%)	50(24%)	203(98%)	50(16%)	197(95%)	12(8%)
고등학교	129	129(100%)	112(73%)	125(97%)	20(16%)	103(79%)	2(3%)
특수학교	10	10(100%)	1(10%)	10(100%)	0(50%)	10(100%)	0(10%)
총계	767	767(100%)	221(29%)	756(98%)	99(13%)	712(92%)	46(6%)

II. 전라북도 인권교육 정책3)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교육을 통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에 기여한다.

1. 학교 인권교육 지원

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준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인권교육 상시화

- 학생 : 학기당 2시간(노동권 내용 포함)
- 교직원 연수, 학부모 간담회 : 연 2회 이상

나. 노동인권교육 지원

- 도내 고등학교(133교) 대상 노동인권교육 지원
- 학급 수에 따른 강사비 지원(1개 학년, 학급당 2시간 분)
- 학생 대상 노동인권 연수 실시(1박 2일 6월 예정, 60명)

다. 도내 기관 및 대학 인권교육 지원

- 지역교육지원청 인권교육 지원(7개 교육지원청 청당 3,000천원)
- 직속기관, 교사 양성대학 교직원 및 재학생 인권교육 지원

라. 인권교육 운영 방안

- 학교 안 차별(2018년 주제)에 대한 주제 강의
- 전교생 및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지양
- 학급별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의 인권교육 권장
- 센터 누리집 인권교육 자료 활용
- 교직원 인권연수 시 관리자 참석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감수성 안내

2. 인권교육 강사단

가. 강사단 인원

3) 2018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계획[실천과제 2]

- 학생인권 강사단 : 34명(교사, 전문직, 시민단체, 인권전문가 등)
- 노동인권 강사단 : 36명

나. 영역 : 학생인권, 장애인권, 성인권, 노동인권 등

다. 강사단 역량강화 워크숍(2회) 및 평가회 실시(3회)

라. 영역별 모임 활성화 : 초등, 중등, 학생인권일반, 노동인권분야 등(분기별 협의)

마. 안내 및 활동

- 학교 공문 안내(3월, 9월)
- 대상별 학교 인권교육 및 기관 인권교육 지원
- 영역별(초, 중등, 노동인권) 인권교육 강의안 구안

3. 사제동행 인권 동아리

가. 모집 (총 100팀)

학교 급	내용	동아리 수	지원금
초등학교	학생인권, 학생자치, 평화, 노동인권 등	100	팀당 200만원
중학교			
고등학교			

나. 모집 기간 : 3월 6일 ~ 3월 16일

다. 일정

- 워크숍 : 4월 초(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
- 활동 보고회 : 12월 중(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

라. 활동내용

- 교사와 학생의 인권감수성 및 종합사고력 신장을 위한 인권, 평화, 학생자치, 노동인권 등 학생 중심의 인권실천활동 전개
- 워크숍과 활동 안내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4. 인권교육 연구 동아리

가. 모집 팀 : 10팀

대상	내용	동아리 수	지원금
교직원	학생인권, 학생자치, 평화, 노동인권 등	10	팀당 250만원

나. 모집 기간 : 3월 6일 ~ 3월 16일

다. 공모 주제

- 초.중.고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인권 관련 정책

라. 일정

- 워크숍 : 4월 초, 활동 보고회 : 12월 중
-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 : 분기별 1회

마. 연구 활동

- 연구동아리 자체 인권 관련 토론 운영
- 실제 인권 수업 적용 후 논의 및 보완을 통한 자료 제작
- 인권 관련 정책 연구
- 연구 자료 탑재(센터 누리집)

5. 인권교육 자료 개발

가. 교재 : 초중등 대상 인권교육 활용 교재

나. 삽화 및 동영상

- 기존 제작 삽화(150편), 웹툰 5화 및 학생인권 홍보 동영상 안내(센터 누리집)
- 학생인권 홍보 삽화 제작(25편)
- 인권교육 활용 학생인권 홍보 영상 제작(1편)

6.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가. 일시 : 4월 2일

나. 슬로건 : 서로 존중하면 사이가 좋아져요, 4월 2일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다. 공문 안내

- 학생회 중심의 '학생인권의 날' 행사 예시 안내(3월 2주)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공모전

- 공모기간 : 2018년 3월 19일(월) ~ 4월 13일(금)
- 참가대상 : 초.중.고 학생, 교직원

마. 학생인권 홍보 포스터 배부

- 대상 : 지역교육지원청, 도내 모든 학교
- 내용 : 학생인권의 날 홍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7. 센터 내 인권교육

가. 학생인권교육

- 대상 : 초.중.고 학생 30명 이내
- 교육시간 : 2시간(화.목.금 오전 10:00~12:00)
- 초.중.고 대상별, 센터 내 교육 프로그램(인권교육, 학생자치활동) 구안 및 운영
- 교육 관련 문의 : 063-237-0352

나. 교직원 인권 직무연수

- 대상 : 교직원 40명
- 일정 : 7월 30일 ~ 8월 3일 30시간(교사), 10월 중 18시간(관리자)
- 내용 : 인권, 자치, 평화, 노동인권

다. 학생인권 아카데미

- 횟수 : 연 6회 실시
- 대상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80명 내외
- 내용 : 인권 전문 강사 초청 강의, 인권교육 강사단 양성을 위한 분기별 교육

Ⅲ. 학교 인권교육 운영 안내⁴⁾

1. 학생인권교육

가. 학급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인권교육 실시

- 학급, 학년, 학교 급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자료 구안 및 공유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중에서 학생 인권 관련 항목 소개 및 토론
 - 인권감수성, 차별과 차이, 자유와 평등, 참여(자치), 평화와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
 - 생활 속 사례를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
 - 수업과 교육과정 활동 속에서 인권과 연계된 활동
 - 인권실천활동
 - 2018 학생인권의 날 운영 안내(3월초 안내) 참조
 -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활동 보고서 내용 활용
- :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http://human,jbe.go.kr>

[/인권교육/사제동행 인권동아리](#)

나. 인권교육 시간 편성

-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 (조례 제30조)
-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인권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편성 운영

다. 노동인권교육

- 학생인권교육 시 노동인권 내용 포함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학년 당 1시간 노동인권 편성 권장
- 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원
 - 노동인권교육 지원 계획 및 교부 안내 참조(4월 초 안내 예정)
- 노동인권 자료 활용
 - 자료명 :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권리』
 - 사용방법
 - 앱(App) : ‘전북학교 소식’ 을 PlayStore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 전북학교소식 BOOK CAFE(하위 메뉴) 클릭 후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

4) 2018 학교 인권교육 운영 안내(인성건강과-4095 2018.3.5.)

권리(3번째) 클릭

- 메뉴 구성

너 그거 아니?(01 최저임금 ~ 11 알바십계명), 청소년 노동인권 Q&A(01~16)

※ 자료의 PDF파일은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인권자료실에 탑재

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제작 및 탑재된 인권교육 자료 활용

•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인권자료/

- 학교 급별 인권교육 자료 활용(지속적으로 탑재 예정)

- 인권교육 연구 동아리에서 제작한 교육 자료 활용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홍보 삽화 활용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를 활용한 인권교육

- 초등 인권교육 교재 『초등 인권교육 이렇게 해요』 활용

-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제작 동영상 활용

초등인권교육(10차시) : 누리집 초등인권 14번 자료 링크

중등인권교육(10차시) : 누리집 중등인권 13번 자료 링크

노동인권교육(5차시) : 누리집 중등인권 15번 자료 링크

- 사례로 배우는 학생인권(15차시) 초 중등 17번 링크

- 단위학교에서 활용한 인권교육 자료를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인권 자료/초등인권, 중등인권 등)에 탑재하여 공유

• 동영상 활용 :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제작한 학생인권조례 홍보 애니메이션 및 학생자치활동 홍보, 회의 동영상

(인권자료/인권동영상 탑재)

• 기타 자료 : 인권관련 도서, 인권관련 동영상 활용(인권자료/인권자료 일반)

마.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운영 안내

• 대상 : 초·중·고 학생 30명 이내 (1일 1교)

• 일정 : 매주 화, 목, 금 오전 10:00~12:00

• 프로그램 : 센터 안내,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조례, 인권관련 활동, 학생자치 등

• 신청 및 문의 : 학생인권교육센터 교사 서민이(063-237-0352)

2. 교직원 및 학부모 인권교육

가. 연수 및 간담회 연 2회 이상 실시 (조례 제31조, 제32조)

- 나. 학기 초 교육과정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인권교육 실시
- 다.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교직원 및 학부모 인권교육 참여
- 라. 연수물 및 가정통신문으로 인권교육을 대체하는 것 지양

3. 학생인권, 교직원, 학부모 연수에 전문적인 강의를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안내한 인권교육 강사단 활용(붙임 2 참조)

- 학교 자체적으로 인권교육 강사단 외 강사 초청 교육 가능

4. 인권교육 강사단 운영

가. 인권교육 강사단 교육감 위촉장 수여(강사단 워크숍 실시)

나. 인권교육 강사와 학교 인권교육 담당교사 간 사전 협의

- 강의 대상, 강의 시간, 강의 장소, 강의 내용, 강의료, 원고료 등
- 2018년도 강사단 인권교육 주제 : 차별(학교 안,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 등)

다. 강사초청 인권교육 시 집합교육 지양

- 학급별 인권교육 실시 권장
-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1,2,3), 고학년(4,5,6)으로 나누어서 인권 교육 실시
- 대상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 지양
예)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한자리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등

5. 교직원 인권교육 시 학교의 장 및 교감 참여

6. 행정사항

가. 강사비, 원고료 지급 : 학교 자체 예산

(고등학교 대상 노동인권교육의 경우 시간당 7만원 지원하고 있음)

나. 강사 섭외 시 어려움이 있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로 문의

다. 교육 후 인권교육 강사단 설문지(붙임 3-학교용)를 작성하여 메신저 (인성건강과 교사 서민이) 제출

라. 학교 인권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설문지(붙임 4-강사용)를 작성하여 제출

인권교육 강사단 설문 (학교용)

선생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인권교육 강사단으로 활동하는 있는 강사의 인권교육에 대하여, 교육을 신청하신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로 개인 인적 사항은 기입할 필요 없습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 다음 각 문항에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대상	학생인권교육(), 교직원 인권교육(), 학부모 인권교육()
영역	학생인권(), 장애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기타()
강사명	
강의내용	

문항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I. 강사의 인권교육 내용 및 만족도			
1.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만족한다.			
2. 강사는 교육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했다			
3. 학생(교직원,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II. 인권교육 효과성			
1. 인권감수성이 높아졌다.			
2. 교육 전보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다.			
3. 다음에 인권교육이 진행된다면 다시 요청할 의향이 있다.			

◆ 이번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유익했거나 개선할 점, 기타 건의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 강사단 설문 (강사용)

강사명					
영역	학생인권교육(), 교직원 인권교육(), 학부모 인권교육()				
강의일자	2018년 월 일		시 ~ 시		
학교 및 기관			대상	학년 명	
강의주제					
강의내용					
강의하면서 학교에 필요한 사항, 교육청 지원 사항, 기타 등					

IV. 인권교육 후 학교 설문과 인권실천활동

1. 학교에서의 의견⁵⁾

- ★ 강사님의 강의 내용에 따라 반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임
- ★ 강사님의 강의 준비를 잘 하셔서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인권교육이 되었으며, 본교 선생님들이 매우 만족을 함
- ★ 근로 노동에 있어서 알지 못했던 점을 많이 알게됨
- ★ 실제 사례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 내용이 유익함
- ★ 학생들의 질문을 주로 많이 받아주신 점이 좋았음
- ★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유의 할 점이라든지 계약서를 쓰는 방법, 급여 계산법 등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호응과 관심이 높았음
- ★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을 노동인권에 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사례 제공 설명이 유익했음
- ★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많은 자료가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 ★ 학교의 일정 및 강사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 특성상 20~30명 내외의 학생이 강의를 듣게 되어 있어서 특정반 또는 특정 학년만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강사진과 협의하셔서 많은 인원이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 ★ 처음에 관심 없던 학생들이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몰랐던 것에 대단한 관심을 갖는 것에 교육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초대하고 싶습니다.
- ★ 학생들이 노동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 관련 사례와 노동법을 알 수 있게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노동법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관련 사항을 보다 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할 수 있는 강사가 민주노동에서 왔으면 좋겠다.
- ★ 예산이 더 투입되어 전 학급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 ★ 학교 인권담당교사 연수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전 교사가 전파되면 좋겠다.
- ★ 재미있고 유익했다. 배운게 많고 좋은 시간이었다.
- ★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춘 내용 및 실제 사례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 주셔서 매우 만족합니다. 건의할 사항은 도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강사료도 도에서 일괄 지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 앞으로 사회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노동관련 침해 사례 및 구제 방안 교육을 통하여, 학생

5) 2018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

들의 노동 권리 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노동의 의미와 올바른 직업관,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본 노동법,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한 대우 대처하기 등에 대한 교육이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인간다운 삶 보장과 차별금지, 청소년 관련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정보에 학생들이 노동인권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인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 학생들에게 행복의 가치와 필요성, 근로계약서작성 등 다양한 정보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임금을 받을 때 필요한 교육을 해 주시니 학생들이 더 주의 깊게 들으면 직접 본인의 임금을 계산하는 등 관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2. 인권교육 강사단 의견

★ 크게 목적을 두지 않고 최대한 편하게 하면서 인권이란 것을 생각해보게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들을 해보는 이야기들 할 때 좋았음

★ 어려움은 늘상 있는데 집중이 안 될 때 내용을 변화시키고 싶는데 잘 안될 때 형식적인 교육으로 받아들일 때

★ 다년의 학생인권교육으로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개념 인식은 좋아졌다. 학생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자기 주장이 많아졌다. 상대적으로 교사들이 학생인권 실천에 대한 피해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듬

★ 학교 일정상 많은 교육이 진행되어 인권교육이 이벤트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학생들이 질문하고 흥미를 보일 때

★ 컴퓨터가 없을 때 힘들었음

★ 교직원교육 - 전교조, 노동 단어 선택이 불합리하다는 교감이 있었음

★ 인권침해현실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적절할지 고민이 됨

★ 기존의 인권시각을 개선하고 인권감수성에 대한 고민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어 분위기를 환기하게 됨

★ 학생교육은 20명 내외 편성이 효과적이며 학부모 대상인 경우 교직원과 분리해야함.

★ 교직원 인권교육의 경우 거의 의무화하여 강사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강하고(자체 교육은 무의미함) 학생 및 학부모교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함.

★ 여유 있게 신청하지 않고 날짜가 임박해서 신청

★ 교육장 세팅이 안되어 있어서 준비시간 때문에 교육시간이 줄어 듬

★ 시작중이 치고 나서 학생에게 시키거나 강사가 하도록 두는 경우도 있음

3. 인권실천활동⁶⁾

활동	내용																														
환경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세계인권선언문 게시인권우호적인 학급규칙 만들기(생활협약 등)학생회실 설치 및 운영, 학생회 게시판 설치																														
학급 인권실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생일 축하 잔치(소중한 나)「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함께 공부하기학급의 인권침해나 보호 사례 찾아보기학급문예행사 : 4행시 짓기(학생인권), 글짓기, 공동그림 그리기인권관련 영화 및 동영상 관람 후 이야기 나누기담임선생님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 갖기학생인권 관련 책 읽고 토론허기 (저학년은 선생님이 책 읽어주기)공동체 놀이(연극, 인권UCC 만들기, 벽화그리기 등)우리안에 인권 찾기(학교안에서 인권실천활동 찾아보기)노동인권교육(일의 가치, 노동의 권리 등)인권나무 심기손가락 인형을 통한 다문화 인권 알기지구촌의 인권문제 생각해보기먼저 손 내밀기(고마운 사람에게 손 편지 쓰기)기념 버튼 만들기상호 존중을 위한 바른 말 사용 캠페인인권관련 주제 발표회학급 인권교육 예시 <table><tr><th>시기</th><th>학 습 내 용</th><th>교과</th></tr><tr><td>3월</td><td>유엔아동권리협약내용 알아보기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살펴보기 우리학교 생활규정 살펴보기</td><td>창체</td></tr><tr><td>4월</td><td>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td><td>창체</td></tr><tr><td>5월</td><td>차별받지 않을 권리</td><td>국어</td></tr><tr><td>6월</td><td>사생활의 비밀과 자유</td><td>도덕</td></tr><tr><td>7월</td><td>사상 양심의 징계 및 절차의 권리</td><td>도덕</td></tr><tr><td>9월</td><td>표현의 자유, 학습의 권리, 인권교육</td><td>국어</td></tr><tr><td>10월</td><td>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td><td>도덕</td></tr><tr><td>11월</td><td>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 1</td><td>국어</td></tr><tr><td>12월</td><td>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 2</td><td>국어</td></tr></table>	시기	학 습 내 용	교과	3월	유엔아동권리협약내용 알아보기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살펴보기 우리학교 생활규정 살펴보기	창체	4월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	창체	5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어	6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도덕	7월	사상 양심의 징계 및 절차의 권리	도덕	9월	표현의 자유, 학습의 권리, 인권교육	국어	10월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도덕	11월	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 1	국어	12월	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 2	국어
시기	학 습 내 용	교과																													
3월	유엔아동권리협약내용 알아보기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살펴보기 우리학교 생활규정 살펴보기	창체																													
4월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	창체																													
5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어																													
6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도덕																													
7월	사상 양심의 징계 및 절차의 권리	도덕																													
9월	표현의 자유, 학습의 권리, 인권교육	국어																													
10월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도덕																													
11월	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 1	국어																													
12월	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 2	국어																													
학교 인권실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생인권의 날 등교 시 축하 행사(축하 엽서, 꽃 한송이 등)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설문 조사(학생인권의 날, 축제 시)																														

6) 위 인권실천활동은 4월 2일 학생인권의 날 행사 예시 및 사제동행 인권동아리에서 운영하는 활동임, 센터 누리집(<http://human.jbe.go.kr>) 자료실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규정 살펴보기(인권 우호적인지) • 학생회 주최 학생인권 토론회 • 학생인권 침해 사례 상담하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골든벨 • 학생회 단위 학생인권의 날(인권홍보) 신문 만들기 및 배포 • 학생인권 관련 학교 내 문예행사 (글짓기, 그림, UCC 등) • 사진 및 동영상 콘테스트, 문예행사 후 시상 및 게시 • 교장선생님 및 학교 선생님과 토크 콘서트(면담과 건의 사항) • 동아리 중심의 인권 문화공연 • 사감데이 행사 (사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과, 감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날) •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하는 운동회 •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사랑의 바자회, 마을회관 봉사활동) • 416 세월호 추모 행사 • 인권 관련 벽화그리기
인권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의 날 기념 인권기행 • 사제동행 인권 기행 <p>학생인권교육센터, 풍남문 광장, 팽목항, 목포 신항, 광주 5·18 민주묘지, 광주학생운동기념관, 광화문, 서대문 형무소, 나눔의 집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집회 참석

V. 마치며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우리 학생들은 자신과 차이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부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따뜻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고 대우받으면서, 소통과 협력할 줄 아는 인권감수성이 풍부한 아름다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인권교육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과 학교에서 보내오는 인권교육 통계 자료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교육의 주체이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목소리로, 학생들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와, 문제점, 발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과 철학인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만들기에 이번 7번째의 학생인권 토론회가 큰 역할을 할 거라 기대가 됩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인권교육

장유노(군산중학교 학생)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쓸 키워드로 ‘학생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학생 인권(學生人權)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이라고 나온다.

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권리의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인권교육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위한 기능과 능력,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와 태도, 인권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인권은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학생인권을 배우기 위해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기당 2회 1년에 총 4회의 학생인권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아래 <표 1>은 2017년 전라북도 내 학교의 인권교육이 보고된 것이다. 총 767개 학교가 학생인권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이외 장애 인권은 567개 학교가 교육을 받아 73.9%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고, 성(性)인권 교육은 359개 학교가 교육을 받아 46.8%, 노동인권은 총 332개 학교가 교육을 받아 43.3%가 교육을 받았다.

<표 1> 전북 학생인권 교육 실태

학교 급	조사 학교 수	학생인권교육	학생인권교육 내용			
		실시학교	학생인권	장애인권	성(性)인권	노동인권
초등학교	421	421(100%)	411	366	210	129
중학교	207	207(100%)	201	119	81	78
고등학교	129	129(100%)	115	72	64	122
특수학교	10	10(100%)	10	10	4	3
총계	767	767(100%)	767	567	359	332

출처 :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참조.

모든 학교가 교육을 다 이수했는데 학생들이 기억하는 정도는 얼마나 될지 의문을 품어본다. 아마도 많은 학생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교육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학교, 학생, 교육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일단 첫째로 학교 측은 학생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 즉 여기에서 학교의 주체는 교사 이외 학교의 전 직원, 학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권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만일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의무는 결국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다음은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일어난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광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인식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24.1%에 불과했고 이들 중 절반은 교과시간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노동인권교육이 부족한 만큼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절반은 노동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10명 중 8명(88.6%)은 '노동자'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청소년에 비해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92.4%, 교사 94.1%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출처 : 호남교육신문, 광주청소년 92.4% “노동인권교육 필요하다, 2014.12.30.일자

위 보도에서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도 하지 못하고, 교육 자체를 받은 학생이 24.1%에 불과하여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제는 자발적인 교육에 대해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넓은 공간에 다수의 학생들을 모이게 하여 강의를 하는 일방적인 교육하는 학교도 있다. 이럴 경우 교육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권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할 경우 소중한 학과 시간만 빼앗을 수 있는 만큼 학급별, 그룹별로 실시하되 상호 토론식으로 진행된다면 참여도 높고 학생들 스스로 인권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임을 알고 자신이 나중에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교육을 잘 들어야 한다. 즉 인권 교육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며 ‘우리’라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발전해 간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이 행어 시험과 무관하거나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해서 듣지 않거나, 교육을 소홀하게 여겨 교육을 잘 듣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인권’은 인간 본연의 권리이자 의무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인권교육은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 않고 학기 말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일회성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강의식 교육이 아닌 학생 참여형으로 교육방식을 바꿔서 학생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학생들이 기억을 더 오래하고, 인권교육을 따분하고 지루한 교육이 아니라 의미 있고 유용한 교육임을 깨닫는 등 장점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에는 지식과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 경험을 통해 노동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일깨워주고, 체험을 통해 배우게 해 교육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한다.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유니온 김종하 위원장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적인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인권교육을 창의재량교육이나 진로교육에 접목시켜 하는 것도 유용할 것 같다"며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컬 투데이, 노동인권교육 기회 없는 아이들, 부당대우에도 ‘그냥 참는다’.

2015.1.8.일자.

제가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집에 갈 때 한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이 기억에 남는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학생들이 교사 폭행 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그렇게 학생인권만 중요 시해서 되냐? 그렇게 교사를 무시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권리를 주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른들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인권만을 강조하면서 교권을 무시하는 것인데, 즉 인권과 교권을 분리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면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다.

실제로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행위는 총 46건으로 집계되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7건까지 포함하면 53건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기관에서는 상호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면서 맞춤형으로 적은 인원의 토론식 교육 방식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인간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해야 할지 인권 교육을 통해서 고민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인권’이란 동등한 권리로서 어느 한편으로 기울면 안 된다.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의 균형을 잘 지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고, 학생인권교육이 학생에게 더욱 실효성이 높은 교육이 되도록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교육

설지윤(전주아중중학교 학생)

1. 학생인권조례란?

학교는 서로 다른 성격과 개성,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본격적인 사회에 나가기 전, 교육을 받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생기게 되는 갈등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학생과 교사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꽤나 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라 부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013년 7월 12일 전국에서 4번째로 전라북도에서 공포하였다.

혹시 학생인권조례에 어떠한 인권들이 보장되는지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학생인권조례는 들어보았지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잘 모를 것 이라고 생각이 든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는 제 5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 1장에는 총칙으로 본 조례가 공포된 목적과 정의,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에 대해 설명과 함께 참고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제 3장에서는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한 인권교육, 인권실천계획,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제 4장에서는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 5장은 보칙으로 마무리 된다.

2. 학교생활규정이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자신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알거나 보신분이 계신가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급게시판 한쪽에 학교생활규정이 프린트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의 문제의식은 미성년자의 인권과 성인의 인권이 같다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에게 허용되는 권리가 청소년들에게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금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기와 억압들이 청소년들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의 근본정신은 청소년의 인간 선언, 시민권 회복에 의의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학교 운영은 구성원들 간의 토론과 합의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교장은 교사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통제라고 느끼게 해주었다. 법이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탄생하는 것인데, 토론과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해당되는 법으로 다스리는 학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학교가 학생이 차별 받고 자유를 억압받으며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 법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학생이 아닌 남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법이 지키고 싶은 자발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생활규정은 주로 학생들에게 해당되지만 그 규정을 알려주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역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규정을 제 · 개정할 때에는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 ‘학생답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 또, 학생을 대상화 하는 표현인 지도, 선도는 교육으로 바꾸어 작성해야 한다.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휴대전화 압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 자치활동의 제한 등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을 위반한 내용역시 담고 있으면 안 된다. 학교생활규정 제 · 개정 절차는 40% 이상의 학생과 교원, 학부모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꾸려 학교생활규정 제 · 개정안 발의를 한다. 이후 설문조사나, 스티커 붙이기를 활용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1차 시안을 마련해 토론회를 실시한다.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시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심의위원회에게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된다. 그리고 학교장이 학교생활규정을 전교생에게 공포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학교구성원 연수를 통해 안내와 홍보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존엄하여, 자유와 평등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정인 것 같다

3. 인권교육 실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28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4월 2일, 사이 좋은 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이 지정되었다. 4월 2일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등굣길에 선생님들과 하이파이브와 프리허그, 과자와 음료수를 챙겨주시며 안부를 건네주셨다. 그리고 교감선생님께서

교복을 입으시고 학생들을 맞이해 주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어색했지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 날 1교시는 수업을 하지 않고 인권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동영상 사이트에 학생인권이라고 치고 그 영상을 1교시 내내 보고 끝나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굣길에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안부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누구하나 집중하지 않는 인권교육영상으로 지나간 1교시는 인권교육보다는 수업안하고 노는 시간이라고 느껴졌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음의 조항에 쓰여 있다. 제 30조 ① 학교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학교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학생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상화 되려면, 어려서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본 조항은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4. 노동권 교육

나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 크게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의무적으로 다뤄야 되는 교육이 더 있다 바로 노동권 교육이다.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 학생들의 노동 참여 비율이 갈수록 증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나친 노동강도, 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학생을 보호해야될 학교마저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노동권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므로,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의 노동을 금기 할 것이 아닌 학생이 누려야 할 노동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 임금 확보 등 교육으로 학생들의 노동권을 찾아줄 필요있다고 한다.

5. 우리가 원하는 학생 인권교육

얼마 전 학생참여위원회 인권교육과 회의를 참석했는데, 그때 장학사님이 자료를 보여줬다. 인권교육센터에서 전라북도 내의 학생인권교육 현황을 학교별로 보고받는데 100%

진행된다는 통계이었다. 그리고 참석한 위원들이 학교 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여부를 돌아가면서 말했는데,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는 않은 교육들이 진행된 것 같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않고, 영상하나 틀어놓고 학습지 풀기 등의 보고용 인권교육은 과연 학생들에게 인권 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줄까 의문이 든다. 앞으로 3시간의 인권교육이 남아있는데, 학생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아를 찾아주는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학생인권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생들과 학교에서 늘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 중심의 인권 교육 강사단 양성 및 학교 현장을 반영한 다양하고 충분한 인권 교재, 강의 자료들의 연구 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다양한 인권에 관련된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학교 밖에서는 학생인권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전라북도 내 학생들과 성인들이 함께 학생 인권에 대해 토론해보고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을 형성해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6. 학생인권 보장의 시작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실수를 저질렀을 시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학생의 잘못을 강압적으로 잘못했다고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악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못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모든 것을 안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였는지 한번만 생각해 보자. 반성으로 학생본인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학생인권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학생인권교육의 관한 건

김광영(군산중앙고등학교 학생)

학생 인권교육에 대한 발제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인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사전에 명시되어있으며 쉽게 말해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이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인권교육의 필요성 또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발제문의 주제는 ‘학생인권교육의 관한 건’입니다.

학생인권교육이란 인간의 보편타당한 권리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식,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 존중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인권교육은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 1항에서는 왜 학생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지 학생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학생인권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공동체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생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권 또한 존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생인권교육이 현대사회에 있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UN) 『인권, 새로운 약속』에서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라고 발표해 학교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 30조 1항은 학생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렇습니다.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이 일상화되려면, 어릴 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중략) 또한,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 학생들의 노동 참여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지나친 노동 강도, 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학교마저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권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므로,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노동을 금기시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이 누려야 할 노동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감안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확보, 임금체불시 대처법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에서는 학생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한 학생인권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교육 센터에서 전라북도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교에서 받은 학생인권교육 계획입니다. 모든 학교가 학생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표와 같이 전라북도 소재지의 모든 학교가 학생인권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을까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

학교 급	조사 학교수	학생인권교육	
		실시학교	강사초청 인권교육
초등학교	421	421(100%)	199(47%)
중학교	207	207(100%)	105(51%)
고등학교	129	129(100%)	126(98%)
특수학교	10	10(100%)	2(20%)
총계	767	767(100%)	432(56%)

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전라북도 소재지 학교별 학생인권교육 내용 계획입니다. 학생인권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고 장애인권, 성 인권, 노동 인권 순으로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교육 내용 중 학생인권의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인권교육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학생인권, 장애인권, 성 인권, 노동 인권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	조사 학교 수	학생인권교육 내용			
		학생 인권	장애 인권	성 인권	노동 인권
초등학교	421	411 (98%)	366 (87%)	210 (50%)	129 (31%)
중학교	207	201 (97%)	119 (57%)	81 (39%)	78 (38%)
고등학교	129	115 (89%)	72 (56%)	64 (50%)	122 (95%)
특수학교	10	10 (100%)	10 (100%)	4 (40%)	3 (30%)
총계	767	737 (96%)	567 (74%)	359 (47%)	332 (44%)

우선 학생인권교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8가지권리로 보았는데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으로 구별하였으며 지금부터 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관한 권리란 말 그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만약 학습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교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 원칙이자 기본 조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의 19가지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는 대표적인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위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차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차별의 예로는 성별 차별과 성적 차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석부의 번호를 특정성별부터 부여하는 경우와 학교임원의 자격을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으로 한정하는 등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르다는 점 즉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하고 또, 어떤 것이 차별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폭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해야할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학생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은 수많은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체벌이 있는데 현행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체벌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체벌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벌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던 도중 미국 초등학교의 체벌 방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의 체벌은 절대로 육체적·물리적 피해는 없으며 대부분 “혼자 점심 먹기(silent lunch)”이며 만약 정말 심할 경우 “부모님 모셔오기(citation)”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체벌문화를 한국에도 적용시켜 본다면 어떨지 생각이듭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학생들이 가장 보장해주기를 원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재까지도 이 권리가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치마 길이, 외투 색깔, 외투 착용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치마 길이를 규제하거나 교복만을 입어야한다고 정하거나, 교복 위에 외투를 입더라도 마이 위에 입도록 하거나 외투 색깔을 검정색과 같은 무채색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신분에 맞는’ 이라는 규정은 표현이 모호하고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학생 개인이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신의 물품을 소지·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 또한 여전히 여러 학교에서 침해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하여 화장품, 전자기기와 같은 물품 등을 장기간 압수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학생의 동의 없이 몸과 책가방을 살펴보는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도 방법입니다. 휴대전화 수거는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거’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수업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휴대전화 사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인권이 규정되어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기 위해 학생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권교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오랫동안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UN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신체적 요소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를 제한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나온 장애인 개념은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를 만드는 요소가 ‘개인’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나온 장애인 개념은 신체적 요소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를 제한 받는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장애를 만드는 요소가 ‘사회 환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개인’의 시각에서 ‘사회’로 변화해야 함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장애인의 차별사례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를 알아보자면 안정성을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시키는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버스 탑승 거부, 불면증과 우울증과 같은 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기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이해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장애에 대해 이해 시켜주고,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 인권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 인권 교육은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한 교육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한 교육을 주로 실시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차별이란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관행을 뜻하며 이러한 성차별은 남자 혹은 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사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등과 같은 법적인 차별도 있지만 저는 남자, 여자를 바라보는 인식으로 인한 차별이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 보통 사람들은 남자의 경우 직장 일을 나가는 모습을 떠올리고, 여자의 경우 가정주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로 만약, 남자가 가정주부 일을 맡고 여자가 직장 일을 나간다면 이상하게 여기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남자가 직장 일을 더 잘 한다는 인식과 여자는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돌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직장 일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여자가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차별문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 또는 생활하는 가운데 남자가 할 수 밖에 없는 또는 여자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식 때문에 남자가 할 수 밖에 없는 또 여자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차별에 대한 또 여기서는 다루지 않은 성소수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인권교육 즉 성 인권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노동권이라는 개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권이란 청소년이 노동활동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지나친 노동을 시키는 등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리이며 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쓰는 행위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17년 청소년 인문학 수업 강사가 실시한 진안·장수 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교 재학 중 50% 이상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53%,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8%, 돈을 못 받은 비율은 10%, 폭언·인격적인 무시는 23%에 달했으며 추가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26%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노동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이 더더욱 필요한 것인데요. 저는 이러한 청소년 노동권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노동을 제재시키는데, 학생의 노동을 금기시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이 누려야할 노동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노동활동을 하기 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확보, 임금체불시 대처법 등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실히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기당 2시간으로 지정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중 적어도 1시간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문을 마치며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이번 발제문을 통해 학생인권교육에 대해 여러 자료를 조사하던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대한 조사 통계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적 없음에 응답한 수는 차례대로 31.1%, 29.9%, 38.1%로 적지 않은 통계였습니다. 특히 일반고(37.1)에 비해 특성화고(42.4)에서 더 높은 수를 차지한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 학교 수업을 핑계로 인권교육을 제대로, 혹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박수정(양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상식적인 말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인간적인 일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인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저에게 인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 아주 거창한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인권에 소홀해져 있는 우리 사회가 떠오릅니다. 수많은 비인간적인 일들과 인권 침해가 매일 매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인권 교육은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어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권 교육.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인권의 중요성,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죠.

절대 몇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인권. 우리는 끊임없이 올바른 인권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조사하고 대책을 찾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에 앞서 현재 전라북도 초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학교가 인권 교육 실시 횟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모든 학교는 학기당 2회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50여개 학교 학생들이 모인 학생참여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애기를 해본 결과, 수많은 학교에서 인권 교육 실시 횟수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 학교의 경우 인권 교육을 내걸고 복장 검사를 하거나 인권과는 관계 없는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모 학교의 경우 성교육을 남자만 실시하거나 인권 교육을 생기부에 기재하고 싶은 학생들만 신청을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인권 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현재 인권 교육은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 교육은 강당에서 300여명의 학생들을 모아 놓고 실시되기도 합니다. 300여명이 모인 공간에서 강사 한 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릴까요? 소수의 인원(약 30명)으로 실시되는 인권 교육 또한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의 강사분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됩니다.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되는 인권 교육은 단지 ‘강의’일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강의는 지루하고 졸립니다. 그리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또한 실제로 인권 교육 사례 중에는 인권 교육에 위반되는 내용들도 많다고 합니다.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권’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권 교육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생각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우고, 인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현되는 아주 사소한 것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인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